

송병곤(부림사건¹⁾ 피해자·법무법인 부산 사무장²⁾) 1차 구술

1. 구술자: 송병곤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7월 19일
5. 구술장소: 부산 연제구 법무법인 부산
6. 구술분량: 07분05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노동법률상담소 활동에서 접한 노무현 변호사의 면모

구술자 : [변호사 사무실 입사하고] 처음에 이제 [사건] 접수하고 법원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이걸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가서 도는 걸(일이 돌아가는 걸) 배운다고. 그거야 한 한 달만 돌아다녀보면 바로 짝, 사건이 어찌 돌아간다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노 변호사님은 글을 써보라 했고, 내한테. 사건[에 대해] 초짜, 들어가서 얼마 되도 안했는데도(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사건을 하나 쥐가지고 글을 써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노 변호사님이 강의, 아침마다 강의했지요. 아침 여덟 시부터. 야,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어느 변호사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겠냐, 아침 여덟 시에 출근해서.

면담자 : 아침시간에 직원들 대상으로?

구술자 : 예, 직원들 대상으로. 참 그게 참, 민법과 민사소송법까지 쪽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아침에 아침마다 그때 전 직원이 다 들었어요. 여직원까지 싹 다 와서 들으라 했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웃음] 아침 여덟 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많이 잤지요. 많이 즐겼는데, 그걸 쪽 하신 변호사님은 어땠을까 싶어요. 그걸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쪽 하셨으니까 참 대단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정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1)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정권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당시 반독재투쟁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을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함으로써 이들을 대중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사건으로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 이들의 변호인단으로 노무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97쪽 참고

2) 2011년 7월 구술 당시 현직

래서 처음 그, [내가] 법대를 나왔지만 그때 처음으로 민법 책을 한 번 끝까지 한 번 다 봤어요.

팔십사(84)년 사(4)월 입사해갖고 팔십사(84)년 말이나 팔십오(85)년 초에 노동법률상담소³⁾를 만들게 되는 것 같은데 어째 노 변호사님이 그 시각에 노동법률상담소를 만들자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참 현실감이 뛰어나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나가는 게 상당히 참 뛰어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막 퇴직금이나 이런 소송들도 있었습시다마는 점점 [노동]현장에서의 싸움들이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슬슬 준비되고 있었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맞춰서 그런 식으로 노동법률상담소를 만들자 하셨던 것 같아요. 나도 적극 좋아했고. 그러니깐 그때부터는 일반 민사사건은 안했어요. 내가 노동법률상담소의 실무자가 된 거죠. 책임실무자가 된 거죠.

노동법률상담소가 그 뒤에 했던 역할들을 쪽 보면 참 부산경남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처음일 겁니다. 노동법률상담소는. 노동자들한테 일이 닳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보호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팔칠(87)년 노동자대투쟁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엄혹했던, 박정희 시대 이후로 계속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이나, 노동운동이라 할 것도 없고 진짜 근로기준법 자체도 잘 안 지켜지는, 퇴직금조차도 제대로 계산 안 해주고 땡가먹는(떼먹는) 그런 세월 속에서 노동법률상담소가 [노동자들을] 도와줬던 역할은 상당히 큼니다. 후방 지원이지만. 그러면서 노동법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알려지게 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크지요.

그렇게 이래 [사무실을] 다녔지만, 변호사님하고 사회나 역사나 우리나라 그때 흔히 이야기하는 혁명이나 노동현실이나 어떤 이런 걸 같이 놓고 이야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좀 변호사님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겠습니다, 양복 얻어 입었던 거⁵⁾나 이런 걸 보면 내를 참 많이 아껴주셨구나 이런 생각은 지금은 들어요.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서

3) 1984년 9월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노동법률상담소를 개소했다.

4) 6월항쟁의 영향을 받아 1987년 7월에서 9월까지 벌어진 전국적 파업투쟁이다. 7월과 8월에만 3,000여 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5) 노무현사료관에 공개한 구술자의 또 다른 구술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로 첫 출근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출근 첫 날 노 변호사가 양복을 사준 이야기가 나온다.

운하다니까, 나도 그랬지만. 그런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과 사장님, [웃음] 두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쉽게 또 하기도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노동법률상담소를 하고 나니까 [나는] 더 현장에 가고 싶은 거야. 더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하고 더, 직접 뭘 하던지 이래 하고 싶지. 내 역량이나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그 곁에 가 있어야 마음이 좋겠어. 도저히 못 있겠더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지요. 인자, 변호사님이 많이 서운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가 내 그만둔다고 친구들 불러서 거하게, '병곤이 니가 최고 좋아하는 친구 몇 명만 불러라. 맛있는 거 사줄게, 환송회 해줄게' 그래가 아, 진짜 거하게 먹었습니다. 거하게 환송회 했어.

■ 구술자 주요이력

1958. 부산 출생

1981. 부산대학교 법학 학사

1981.09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3.08 석방

1984.04 변호사노무현법률사무소 입사

1984.09 - 1985 변호사노무현법률사무소 내 노동법률상담소 근무

1988. 노동법률사무소 복귀

법무법인 부산 사무장(2016년 현재)

부림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60여 일간 불법감금 당한 피해자로 노무현 변호사와 처음 만났다. 부림사건 피해자와 변호인으로서 첫 만남은 자서전 <운명이다>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983년 8월 특별사면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노동법률상담소가 차려지면서 실무책임자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985년 말 사무실을 떠났다가, 1988년 문재인 변호사가 이어 맡은 노동법률상담소로 복귀했다. 2016년 현재까지 법무법인 부산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